

공공도서관 장서의 성향 분석

김 영 기 *

〈목 차〉

- I. 서론
 - II. 광고, 서평,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성향
 - 1. 광고와 서평
 - 2. 베스트셀러
 - III. 추천도서, 권장도서를 통해 본 성향
 - IV. 장서의 성향 분석
 - V. 결론 - 기본이념의 정착을 위하여
-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신문서평이나 신문광고, 이 달의 추천도서, 금주의 베스트셀러, 국립중앙도서관 권장도서목록 등을 통해 수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할 말이 있다. 그 외에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것이나 이름 있는 출판사 즉 법문사, 형설사, 박영사 등에서 나온 책이나 이름 있는 대학교수가 쓴 책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것들이 우리가 수서할 때 주로 참고하는 서지들이다.¹⁾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1) K 권장과의 인터뷰, 1997. 11. 5. 11:00~13:30, Y 도서관 관장실.

위의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의 수서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수서 도구로서 일간지의 출판 광고와 신문서평이 있다. 여기에는 신문의 서평이나 광고에 실리는 책들이 일반 이용자와 도서관 사서에게 비슷한 정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다든 현실적인 논리가 작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잘라 버리려고 하는 수서 담당자의 수동성과 순응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2) 그것은 다양한 문헌들에 대한 성실한 관찰과 비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공도서관 장서로서의 기본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현재의 대중심리에 밀착해버리거나 그것을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주류 담론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3)

이러한 신문광고나 신문서평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집계되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장서를 축적해오는 과정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는 책을 선호하는 것 역시 '베스트셀러로서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확인작업 없이, 특정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변인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베스트셀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위로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채워지고 있는 주된 현실이 되고 있다.

독자들의 독서경향에 직·간접으로 반응한 이들 목록과는 달리 나름대로 '권위' 있는 기관들에 의해 선정되어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도서관 및 단체들에 '하달'되는 각종 추천도서 목록 또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독서교실 선정 목록」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각종 언론사나 대형서점, 각종 단체 등이 추천하는 나름대로의 목록들이 존재하지만 공공도서

2) 김영기, 「현상학적으로 본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 요인 -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1998. 9), 112~126쪽.

3) 엄혜숙, 염재웅, 이우용, 임규찬 좌담, 「우리시대의 '잘 팔린' 책'들을 진단한다」, 『베스트셀러』 시대평론, 1990, 5~19쪽.

관의 장서형성 과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신문광고나 서평,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감수성에 기초한 상업주의 문화에 대한 편승'이라면, 이들 추천도서 목록은 '건강한 독서'를 지향하려는 공공도서관이 기대왔던 또 다른 언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성향을 분석한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진실성과 사회적 유효성,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서 전체의 '주류 성향'과 '대항 성향'을 밝혀내어 보자는 것으로, 이것은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류가 침묵을 조장하는 정서인가, 아니면 비판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서인가'라는 질문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장서의 성향 분석을 위한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을 내포한 충분한 양의 서평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은 이 글의 영역과 연구자의 능력을 벗어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정서형성 과정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수서 담당 사서들이 기대 온 '안식처'였던 출판광고와 서평, 그리고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권장도서목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장서의 성향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Ⅱ. 광고, 서평,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성향

1. 광고와 서평

출판광고와 신문 서평이 도서관의 장서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의 비교를 시

4 圖書館學論集(第 29輯)

작으로 이들 목록의 성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한 유력 일간지 <《일보》>를 선택하여 1960년부터 매 5년 단위로 10월 한달 치의 신문에 나타난 광고와 서평을 부산의 P 도서관의 장서와 비교해 본 결과를 문학과 문학을 제외한 영역으로 대별하여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광고·서평의 거재건수와 소장율 비교

구 분	문 학			문 학 외			계		
	건수	비율(%)	소장율(%)	건수	비율(%)	소장율(%)	건수	소장율(%)	
광 고	계재	273	71.1	79.6	111	28.9	63.1	384	74.5
	소장	216	75.5		70	24.5		286	
서 평	계재	22	38.6	54.5	35	61.4	48.6	57	51.0
	소장	12	41.4		17	58.6		29	

광고와 서평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오히려 공공도서관의 장서 선택에 신문의 본문에 나타난 서평보다 광고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4)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광고에 비해 서평의 게재건수가 훨씬 작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고는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모두 384건이 나타났지만 서평은 57건에 머무르고 있다. 서평의 절대수가 작다는 것은 도서관 수서 도구로서 광고에 대해 서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주된 요인이 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광고의 경우 그 대부분이 문학류인 반면, 서평에는 문학류를 제외한 영역이 문학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즉 광고의 경우 문학류가 전체의 70%를 웃돌고 있음에 반해 서평의 경우는 문학류가 4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문학을 제외한 각종 전문서적들이 60%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이용자들이 문학류를 많이 찾는다는 사실과 이용자의

4) 김영기,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의 다섯가지 은신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제53권 제4호(1998 겨울), 125~126쪽

수준에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맞추려는 도서관 수서 담당자의 태도가 맞물려 상대적으로 문학류에 대한 광고와 서평의 반영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며, 결국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소설이나 수필 등의 문학류 중심으로 채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으로 신문·잡지 등에 게재되는 서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이들 서평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판이 기피된 채 무조건 칭찬하는 일변도의 해설적이고 계몽적인 서평들이 주류를 이룸으로서 '아는 사람이 아는 사이니까 적당히 칭찬해 주는 서평들'이란 인식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심지어 언론의 서평이 '주례사'에 비유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서평 게재 건수의 절대적 빈약, 문학 분야 위주의 공공도서관 장서, 그리고 언론 매체 서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결합되어, 광고에 비해 서평이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광고에 등장하는 책들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우선 1993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출판계의 현실을 비판한 한 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다소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실제로 책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독자들에게 독서를 건강하게 유도하기보다는 무분별한 판매활동만을 벌여오지는 않았던가, 혹시 그들은 건강한 독서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독자들을 유혹하지는 않았던가 한번 살펴볼 일이다.

근래 우리 독서계와 출판계에는 건강한 독서를 권장하는 양식 있는 비평작업이나 서평작업은 없고, 독자의 감각적인 시각만을 자극하는 광고밖에 없는 듯한 출판풍경을 일부 출판사들은 앞다투어 만들어 온 것만은 사실이었다. 우리 나라 책 광고의 크기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듯 하다. 모든 정보가 값비싼 대형 광고를 통해서만 전달되니, 책값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책값의 상승만큼이나 지적인 여과 없이 이루어진 상업광고 때문에, 독자들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 역시 그만큼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무겁고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책들은 잘 팔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아무튼 출판사와 저자들이 잘 팔리지 않는 양서는 내지 않게 되고, 오직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해 그 반대의 행위만을 되풀이한다면, 그 사회는 정신적인 뿌리를 잃게 되어

6 圖書館學論集(第 29輯)

문화적으로 그만큼 취약하게 되고 말 것이다. 문화적인 층이 약하면, 그 사회는 그만큼 기반이 약해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⁵⁾

이 글에는 '독자의 감각적 시각만을 자극하는 광고밖에 없는 듯한 출판 풍경' 속에서 각종 출판광고가 '건강한 독서보다는 상업적으로만 독자를 유혹'하고 있다고 꼬집은 다음, 이런 광고들이 '아무런 지적 여과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업광고 일변도라는 광고의 본질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출판광고비는 매년 증가하여, 1995년도 출판광고비가 2천5백60억8천9백만 원으로 이는 우리 나라 총 광고비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식품·음료, 정밀 사무 기기, 서비스·오락분야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출판사들간의 과당 경쟁이 그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출판광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출판산업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성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출판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판산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산업의 한 유형으로서 파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판산업 역시 다른 문화적 제반 요인들에 앞서는 기업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출판광고는 이러한 출판기업의 잉여창출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출판광고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위한 안내자로서의 역할 등과 같은 문화적 제반 논리에 앞서 광고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책의 구매와 독서 행위는 자유로운 존재로 비치지만 그 자유는 형식적인 자유일 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 상품으로 교환되는 한 출판에 참여하는 개인은 사회적 관계가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⁶⁾ 다시 말해 출판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출판

5) 이태동, 「서평작업과 윤리의식」, 《서평문화》 제11집(1993), 7~8쪽.

6)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146~147쪽.

7) 박형복, 「출판운동의 변혁적 전망에 대한 모색」,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1990, 358~361쪽.

물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제작할 수도 없을뿐더러 출판물의 구매행위 역시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제공해 주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성과 함께 출판산업 자체에 내재된 특수성 또한 출판광고의 성향을 분석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 출판산업의 경우 상품으로서의 서적이 한 번 생산되어 판매가 성공하면 그 이후부터는 생산 비용이 큰 폭으로의 절감되어 다른 상품에 비해 더욱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며, 출판업의 이런 특성은 '영세자본과 주먹구구식 경영에 의한 도발적 출판업'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세자본에 의한 출판산업은 오히려 상업적 측면에 더욱 크게 좌우되어 출판문화의 저속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⁸⁾

이 외에도 잡지를 제외한 단행본에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여 대량생산 체제하의 출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장의 독점 및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라든가, 출판업과 인쇄업, 제본업, 판매와 유통의 구조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광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출판업의 한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⁹⁾

셋째는 한국적 출판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작업이다. 이 점은 주로 한국 출판문화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발현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출판인은 한국 출판문화의 제약요인들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¹⁰⁾

① 이 땅의 출판문화를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은 '민족분단으로부터' 기원된다. 민족분단은 출판문화의 원천적인 제약요인이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은 우리 출판문화의 공간적 역사적인 분단일 뿐 아니라 사상적인 분단을 의미한다. 분단

8) 한편 이와 반대로 대자본에 의한 출판업의 독점화도 출판문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 이러한 독점은 출판문화의 획일화와 질적 저하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획일화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박유봉·채백, 『현대출판학원론』 보성사, 1991, 163~168쪽)

9) 성동규, 「한국출판산업의 자본축적과 국가통제」,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1990, 258~261쪽; 박유봉·채백, 앞의 책, 163.

10) 김언호,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 - 우리시대의 출판운동에 대한 한 출판인의 현장보고」, 한길사, 1987. 55~57쪽.

이라는 가장 극악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의 출판문화는 질과 양에 있어서 늘 한계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공간적으로 그만큼 축소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독자층도 그만큼 왜소해진다.

② 책 또는 출판문화를 보는 눈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또한 우리의 출판문화를 심하게 제약한다. 출판문화는 본래가 다양성 속에서 꽃필 수 있는 것이다. 의견과 논의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론 및 학문, 사상은 창조된다. '이런 책' '저런 책'이 가능해야 한다.

③ '왜곡된 근대화주의'가 우리의 출판문화를 제약하고 있다. 문화적 가치와 논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천박한 근대화주의가 위세 당당한 구조 속에서, 불신주의·금력주의·권력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지성과 문화 책은 발붙일 터를 잃게 된다.

④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기하면서 우려하는 바는 이 땅에 요란하게 붙어닥치는 '대중사회적 징후'이다. 민족공동체인 삶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하지 않는 인간, 사회성 없는 집단주의, 철학 없는 개인주의, 주체성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대중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출판환경의 한국적 특수성으로서 민족분단, 권위주의적 성격, 왜곡된 근대화주의, 대중사회적 징후의 네 가지를 꼽고 있으며, 이들 요소가 우리 나라의 출판문화를 심각하게 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출판산업을 규정하는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한국적 출판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출판광고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도출된다.

첫째는 출판광고가 이념적·사상적 편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은 8·15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반공의 최전방에 서게 된 한국의 출판산업을 그 동안 분단 이데올로기의 강요에 의해 '반쪽자리 시장'으로 전략하게 되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도식화와 도식화된 대립의 절대화'로 확대되어, 선택자로서의 주체성을 약탈하게

되며 결국은 구조결정론에 빠져들게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¹¹⁾ 이러한 구조결정론의 만연은 현존하는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여 결과적으로 기존하는 지배 체제에 복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무겁고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책보다는 가볍고 감각적인 책들이 출판광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출판산업의 기업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출판사와 저자들이 잘 팔리지 않는 양서는 내지 않게 되고, 오직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해 그 반대의 행위만을 되풀이하게 되며, 따라서 많은 출판사가 상대적으로 출판비용이 적게 들고 이윤율이 높은 분야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출판광고에 나타난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¹²⁾, ① 상대적으로 인세의 부담이 적은 고전이나 외국문학 번역물, ② 마진이 비교적 높은 문학이나 실용서적의 전집물, ③ 대중의 감각적 요구를 반영한 애정류의 통속소설, 감성적인 수필, 처세술, 무협물이나 수기류, 명상이나 운명관련 저작들, 그리고 ④ '구매력이 강한 중산층과 교양에 굶주린 대학생과 여성들의 지적 허영심'¹³⁾을 반영한 교양주의에 영합한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출판광고는 잘 팔리는 책과 잘 팔리지 않는 책 사이의 격차를 시간이 갈수록 무섭게 벌려놓아 출판광고의 상업주의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출판광고가 지닌 이런 식의 성향은 공공도서관 장서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 베스트셀러

이임자는 시기별로 핵심이 되는 베스트셀러 16권을 선정하여 각각의 베스트셀

11) 냉전 이데올로기의 폐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난개로 난다』 두레, 1994, 158~159쪽.

12) 출판광고의 경우 전체의 75.5%(384건 중 273건)가 문학분야였으며, 그 중에 79.6%(216건)가 공공도서관의 상서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강준만, 『인물과 사상 3』 개마고원, 1997. 8, 24쪽.

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베스트셀러의 요인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① 작품적 요인 : 섹슈얼(sexual), 센터멘탈(sentimental, sensitive), 센세이셔널(sensational)한 내용, 호기심에 바탕한 대중성과 통속성 배태

② 출판 기획적 요인 : 대중적인 독자를 겨냥한 출판 전략

③ 상황적 요인 : 시대에 정확하게 닿아준 적시성

④ 출판산업 구조적 요인 : 출간 전 캠페인과 발매 광고, 신문 잡지 등에 책 광고를 계속 낸 점, 저명 인사들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

그러나 위와 같은 베스트셀러의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베스트셀러에는 베스트셀러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함정이라든가 베스트셀러 조작설¹⁵⁾, 광고에 의한 베스트셀러 만들기, '나눠먹기' 식의 범람하는 문학상을 통한 베스트셀러 만들기¹⁶⁾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문화로서의 책, 가치로서의 출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상업주의적 탐욕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소리마저 들리고 있다.¹⁷⁾

또한 '독자의 구분에 있어 모든 책의 일차적 소비자는 개개인 국민이 아니라 공공적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되어야 책의 유통에 있어서는 정상적'¹⁸⁾임에도 불

14) 이임자, 앞의 책, 221~321쪽. 한편 이 책에서 분석대상이 된 베스트셀러 16권은 다음과 같다. 『혈의 누』, 『무정』, 『상록수』, 『순애보』, 『우리말본』, 『자유부인』, 『광장』, 『흙속에 저 바람 속에』, 『조선총독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사람의 아들』, 『인간시장』, 『홀로서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소설 동의보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5) 베스트셀러의 조작설에 대한 이야기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나왔지만 출판사들이 자사의 책을 무더기로 되사들이는 이른바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여기에는 가벼운 주제의 쉽게 읽히는 책을 선호하는 독자들의 독서습관과 비슷한 종류의 읽을 거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출판상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아무리 책 내용이 충실하더라도 도·소매상은 물론 독자들까지 별다른 관심을 가지 주지 않는 도서 유통 구조, 그리고 광고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출판시장에서 일간지 광고에 비해 사재기 비용이 훨씬 적게 먹힌다는 사실 등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강문 기자, 「상업주의 출판의 종착역, 베스트셀러 조작」, 《(월간) 말》 제139호(1998. 1), 98~101쪽).

16) 김명숙, 「범람하는 文學賞, 권위가 없다」, 《新東亞》 1989. 2, 480~489쪽.

17) 최구식, 「베스트셀러의 현주소」, 《서평문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집(1991), 28~39쪽.

18) 이중환, 「베스트셀러란 무엇인가 - 베스트셀러의 세계적 양상과 기준」, 《서평문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집(1991), 12쪽. 같은 글에서 이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일본

구하고 우리의 독자층이 10대 후반과 20대에 치우쳐 있어 전문영역별이나 계층별로 균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나라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우리의 베스트셀러는 연령적으로 제한된 투자시장에서 독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책들을 말하게 된다. 그러니 자연 독자의 현재적 수준과 관심밖에는 책의 내용이 더 발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히 베스트셀러의 내용은 더욱 질적 문제와는 연관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하고 폭넓은 독자의 총합적인 수용 결과로서의 베스트셀러만이 어느 한 사회가 만들어 내는 실제의 베스트셀러이고, 또한 이것이 어느 한 사회가 어느 한 시기에 있어 주된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⁹⁾

이와 함께 고전이나 번역물을 중심으로 한 '가수요현상' 역시 베스트셀러가 안고 있는 허상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가수요현상은 고전이나 번역물에서 흔히 나타난다. 앞서 말한 어려운 고전들의 경우 이를 판독할만한 전문가 층이 극히 얇은데도 꾸준히 베스트셀러 주변에 머물게 된 데는 지적인 호기심이나 지식인으로서의 의무감 같은 것도 작용하고 있지만 애당초부터 장식용으로 팔린 것도 적지 않다.²⁰⁾

이처럼 이성과 성을 다룬 섹스문제, 감상적인 것, 선동적인 센세이션한 것, 쉬운 것, 재미있는 것, 기발한 것 등을 찾는 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상업적 출판물들이 우리 나라 베스트셀러의 주종을 이루게 됨으로써 결국은 독자를 흥미위주로 몰고 가는 폐단과 독서의 편식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스트셀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글은 어렵지 않게

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입할 책으로 선정하면 이는 곧 2만 부쯤의 책을 산다는 뜻이 된다고 한다.

19) 같은 글, 13쪽.

20) 같은 글, 26쪽.

발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작품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비판한 글은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베스트셀러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의지한 것은 『베스트셀러』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문열」이라는 두 편의 글이다.

『베스트셀러』는 우리 시대의 초 베스트셀러 작가들인 이문열, 김우중, 마광수, 유안진, 조정래의 작품을 이우용, 박노해, 염재웅, 엄혜숙, 임규찬 등의 소장 평론가들이 평한 것으로, 「우리시대의 '잘 팔린 책'들 전면 비판」이라는 부제만큼이나 비판적인 성격이 짙은 글이다. 이 책의 서두에는 박노해를 제외한 네 명의 평자들의 좌담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나라 베스트셀러의 성격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²¹⁾

우선 수필의 경우 '수필은 자기가 보는 세계방식과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내용을 자신의 생활철학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영향력은 다른 장르에 비해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 한 다음, '많은 수필들이 현실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삶의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내용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를 방관·외면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행·불행의 차원으로 왜곡시키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다'(엄혜숙), '독자의 시선을 자기 몸뚱아리의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임규찬), '분홍빛 수필집들이 화려한 문체와 감각적인 어휘로 현실의 왜곡된 문제들을 예쁘게만 포장하고 있다'(염재웅), '노력만 한다면 성공의 열매가 너희들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염재웅) 는 등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식의 경향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정신적 유희 속으로 도피하고자 했던 독자들의 성향, 시대상황이나 역사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환하여, 독자 개개인이 갖는 감정 옹어리를 대리 분출시켜준 역할을 충분히 담당,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기를 거부하는 일면'(이우용) 등으로 평가한 다음, 수필집이든 소설이든 간에 문학에 있어서 소위 베스트셀러로 지칭되는 것들의 전반적 특징

21) 이우용 등, 『베스트셀러 - 우리 시대의 '잘 팔린 책'들 전면 비판』 시대평론, 1990, 5~19쪽.

을, '현재의 대중심리에 밀착해 있고 또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허황된 이야기, 즉 비현실적이고도 특정 계층의 감상적 카타르시스에 불과한 작품들을 두고서 단지 그 저자가 유명작가라고 해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충고를 덧붙이고 있다.

한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문열」은 작품의 성격을 그 작가의 성향과 결부시켜 평가를 하고 있다.²²⁾ 이 글이 지적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구매력을 지닌 중산층의 유사교육열과 작품의 교양주의가 적절히 맞아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지적을 몇 편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씨가 누리는 인기의 비결은 '교양주의'에 있다. 한국에 있어서 교육열은 신앙이며, 교양은 '유사 교육열'로 일종의 사이비 신앙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재미 있는 영화 한 편을 잘 보고 나서도 "재미는 있는데 남는 게 없어."라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는 것도 바로 그런 사이비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저(이문열)는 제 작품이 많이 팔린다는 것을 좋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대중의 기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매력을 지닌 중산층의 교양주의에 영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작가의 정치적 성향이 지배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일치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언론을 통한 지원을 업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언론은 문인들을 선출하고 키워주는 등 그들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연스럽게 작품의 상업주의와도 연결된다.

이씨의 성공비결은 단지 그의 문학적 재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학과 인문이 뜨겁게 유착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2) 강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문열 - '시대와의 간통'을 저지른 '문화권력」, 『인물과 사상 3 -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 개마고원, 1997. 8, 19~59쪽.

그 어떤 문인도 언론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씨는 그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 덕분에 기존의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어떻게? 그 매개가 바로 언론이다. 우리 언론은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을 수호한다.

제다가 이씨는 구매력이 강한 중산층과 교양에 굶주린 대학생과 여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소설가다. 이는 언론이 상업적인 관점에서도 이씨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어찌 언론뿐이라.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그 말썽 많은 이씨의 소설 『선택』을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식인들에겐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의 막강한 제도다.

셋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세계관 역시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씨는 이념 문제건 정치문제건 남녀문제건 많은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기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기득권 세력을 즐겁게 해 주는 데엔 거의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어차피 세상은 고통의 도가니. 고통에 저항하기 보단 묵묵히 받아들여 견디는 것이 세상살이이고 삶의 미덕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주장이 세상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기득권자들이 항용 즐겨 쓰는 뻔뻔스런, 자기보호 논리임은 머리가 달린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베스트셀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베스트셀러로 지칭되는 각종 작품이 갖고 있는 성향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첫째로 도출될 수 있는 베스트셀러의 성향은 '반사회성'이다. 즉,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를 방관·외면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행·불행의 차원으로 왜곡시키는' 등, 모든 사회조건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이 개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식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교양인'과 '상식인'을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노력만 하면 성공의 열매가 너희들 것'이므로 '말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훈계하기도 하며, 급기야는 '복종이 미덕'이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대중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면서도 그 성향을 반사회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둘째는 ‘반사회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측면으로서 베스트셀러의 ‘반역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시대상황이나 역사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환’하여 이를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탈(脫)정치·탈(脫)갈등의 논리’가 베스트셀러에 내재된 작품적 성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추가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극우적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경향은 한 작가나 작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작품의 소재라든가 이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훨씬 보편적인 방식이다. 즉 ‘3S’로 일컬어지는 성적이고 감성적이며 감상적인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소설이나, ‘진실, 사랑, 슬픔, 고독, 우수, 추억, 행복, 여자, 죽음, 이별’ 등과 같은 화려한 문체와 감각적인 어휘들을 동원해 노래한 대다수의 ‘분홍빛’ 수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한 현실적 모순에 대한 위로나 도피처의 구실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수·우익의 논리를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한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그것은 대중들에게 또 하나의 역사로 굳어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²³⁾ 따라서 베스트셀러에 내재된 이러한 주류 성향들은 생활적이고 사회과학적인 것을 배제시키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방식에 커다란 제약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베스트셀러의 80%를 상회하는 책들이 도서관의 장서로 소장되어왔다는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안고 있는 성향들이 고스란히 도서관의 장서로 이전되어, 공공도서관 장서의 성격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주된 변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 이종한, 앞의 글, 20쪽.

Ⅲ. 추천도서, 권장도서를 통해 본 성향

문화부의 추천도서 목록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은 그 성격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근접하고 있다. 주로 출판사에 의해 추천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 이를 선정하는 기관이 정부 부처 또는 그 산하기관이라는 점, 추천된 책의 일정 부분이 각급 도서관으로 배포되며, 구입이 공식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는 출판광고나 베스트셀러 등과 함께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 과정에 또 다른 버팀목이 되어왔던 「청소년권장도서목록」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품고 있는 성향의 일면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²⁴⁾

그렇다면 「청소년권장도서목록」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여기서는 《서평문화》 참여자들²⁵⁾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이 목록에 나타나는 책의 성격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서평문화》의 창간동기부터 살펴보기 위해 그 창간사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는 오늘날 세계 열 손가락에 꼽히는 출판국의 대열에 끼어 있다. 연간 약 4만 종류를 웃도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2억 권 이상이나 펴내 지고 있으니 수량적으로는 당당한 출판대국 중의 하나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이고 질이다. 그 많은 종류의 책, 그 많은 권수의 책이 도대체 어떤 책들일까? 그것을 따져 보면 정말 뒷맛이 쓰게 된다. 그들 2억 권 이상을 차지하는 책들 중 그 가장 큰 몫이 바로 참고서와 입시 및 취직시험 준비서이다. 그런가

24) 여기서 문화부 추천도서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선정기준이 매우 애매하여 성향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부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추천도서를 선정하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문화부 책임자 스스로도 부끄럽다며, 일부 선정위원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나라의 문화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부서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지식문화 자체가 심각하게 멎들게 할 것이라는 한 문화부 기사의 말에 문화정책 담당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상수, 「또 부끄러운 문화부 추천도서」, 《한겨레》 1998. 11. 21).

25) 참고로 서평위원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전공의 대학교수와 문인협회 회장, 인문사 논설위원 또는 편집위원 등으로 왕성한 학술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그들 책 중에는 돈 버는 방법, 입신출세하는 처세술을 비롯하여 먹고 놀고 즐기는 등속의 책도 만만치 않은 비율이 된다. 물론 거기에는 외설과 음탕과 패덕과 불륜의 것이 빠질 수 없다. 그들 책은 많은 경우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다. 그들 책은 우선 즉흥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극적이고, 충격적이기를 주안으로 삼는다. …… 그 나머지 우리 사회에서 출판되는 책은 우리의 입시제도나 교육내용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두뇌와 의식의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나머지 흑백논리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과 현상을 일컬어 책 공해라고 이름짓게 된다. ……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착실하고 진지하게 열심히 책을 읽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좋은 책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시급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²⁶⁾

여기에는 수량적으로는 우리 나라가 출판 대국에 속하지만 그 책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전체 출판물 중에서 참고서와 입시 및 취직시험 준비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입신 출세의 처세술이라든가 놀고 즐기는 등속의 책, 그리고 외설과 음탕과 패덕과 불륜의 책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나머지 역시 입시제도나 교육내용과 더불어 우리의 의식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책 공해’의 현상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책의 산더미 속에 묻혀 살고 있으면서 ‘신문이나 광고의 조작’ 까지 겹쳐 독자들이 어느 것이 읽을만한 책인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출판환경 속에서 ‘골고루 좋은 책을 선정하여 추천’하기 위한 서평작업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전한 비판정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건전한 비판정신 없이 양서의 출간이란 기대되기 어렵고, 독자들에게 대한 “좋은 책”에의 길잡이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특히 영리주의 상업주의가 창궐하는 이 마당에 출판세계에서의 “그레삼”의 법칙은 피할 길이 없는 것으로 믿어진다.²⁷⁾

2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회, 「서평문화를 내면서」, 《서평문화》 창간호(1991. 4), 5~8쪽.

27) 같은 글, 10쪽.

한편 서평문화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고민은 제2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전문서평과 일반서평을 구분하면서, '왜 이 책이 이 시대에 삶의 지식과 지혜에 도움이 되는가를 늘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한다는데 대한 합의와 함께, 《서평문화》의 대상을 '평균적인 국민의 교양으로 명시하게 된다.²⁸⁾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서평문화》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는 '저속한 상업주의나 간교한 영리주의자들에 의해 날마다 찍혀 나온 외설과 선정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필요악의 태두리를 넘어서 하나의 정신공해의 원흉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인식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서평문화》의 태도는 자신들의 평가처럼 너무도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장에 대해 스스로 감동까지 하고 있다.

이 땅에서 악서를 추방해야 한다고 목청 높게 외쳐대기보다는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안 읽어보겠는가 하고 던지시 내미는 겸손을 우선으로 해내 온 셈이다. …… 살찐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맑은 눈매를 지닌 사슴이 되고파하는 심정은 그 얼마나 감동적인가?²⁹⁾

한편, 《서평문화》 제15집에는 이 잡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중의 일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³⁰⁾

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건전한 독서문화의 기층집단(基層集團)을 만드는 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서 그 같은 기층구조가 허약하며 대부분이 대중문화·감각문화·오락문화·놀이문화 쪽으로만 휩싸여 있다. 이 점을 깊이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빼뚫어진 독서문화를 바로잡고 건강한 독서계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회, 「서평문화가 가야할 길」, 《서평문화》 제2집, 5~7쪽.

29)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회, 「서평문화 창간 한해를 보내며」, 《서평문화》 제4집, 5~9쪽.

30) 김대환, 「정당한 비판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다 - 왜 서평은 필요한지?」, 《서평문화》 제15집(1994. 9), 5~13쪽.

② 우리가 비평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평을 가하는 책들은 너무 어려운 학술·전문서적도 아니고 저속한 대중소비 문화적인 것도 아니다. 그 중간위치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책의 내용이고 난이도를 감안하고 있다.

③ 우리가 비판이나 비평이라고 할 때 곧 잘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기 쉽지만, 비판이나 비평에는 좋은 점의 지적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점의 지적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독(一讀)을 권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평문화》 참여자들 스스로의 진단 속에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권장도서목록」의 성격과 한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단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압된 정치구조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나친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예산부족과 비매품이라는 두 개의 질곡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서평문화》가 지닌 건강한 비평정신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평균적인 국민의 교양을 그 대상으로 건전한 독서문화의 기층집단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교양적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책의 난이도를 학술·전문도서와 저속한 대중소비 문화적인 책의 중간 위치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수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있다.

넷째,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균형 유지에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는 관점의 부재와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기치중립성 표방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선택의 지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서평의 방식이 너무 암전하여 악서에 대한 비판보다는 양서를 권유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³¹⁾ 문제가 있는 책의 경우 적극적 비판보다는 무관

31)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좋지 못한 간행물에 대해서 비평을 할 때에는 저자와 심한 갈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

심 쪽을 택해 오히려 그 양산을 방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³²⁾

여섯째, 실제로 추천된 책의 면면을 보면 현실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뚜렷한 관점이 드러난 책은 추천 목록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문학 분야의 경우 외국 책의 번역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역사에 있어서는 현대사보다는 고대사와 중세·근세사 쪽이,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원론적인 내용이나 실무적인 내용, 또는 다른 나라 사회나 미래사회를 그린 책들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서평문화》는 매우 건강한 비평정신과 넓고 깊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앞에서 지적된 한계에 대한 극복과 함께 실제로 이런 관점과 기준이 「청소년권장도서목록」의 선정에 얼마나 관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IV. 장서의 성향 분석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편승해 온 여러 목록들을 그 성격에 따라 유형화시켜보면 출판광고와 안내 수준의 언론 서평,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한 편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부 추천도서와 청소년권장도서 목록이 다른 한 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출판광고나 베스트셀러 등이 안고 있는 성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는 이념적·사상적 편향성을 강하게 띠면서 극우적 경향을 노정시키고 있

의와 분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저급한 저서가 있을 때 그것에 집착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이태동, 「서평문화의 길 -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서평문화》 제21집(1996. 3), 7쪽).

32) 물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서평작업과 함께 도서심의 작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도서심의 작업이 저급한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책을 고르는 안목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 이것은 부당한 현실적 모순에 대한 위로나 도피처의 구실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수·우익의 논리를 대변하게 되며, 기존하는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무겁고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책보다는 가볍고 감각적인 책들이 출판광고와 베스트셀러의 주류를 이루게 됨으로써 반사회성과 반역사성이 발견된다. 여기서 반사회성이란 사회조건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이 개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식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며, 반역사성이란 시대상황이나 역사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환하여 이를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식의 작품적 성향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부 추천도서나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의 경우 건강한 비평정신을 통한 지적인 여과과정은 거쳤지만, 가치중립성의 강조로 인한 관점의 부재라든가, 적극적 비판보다는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본질을 비켜 갔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교양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문학 분야의 경우 외국 책의 번역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역사에 있어서는 현대사보다는 고대사와 중세·근세사 쪽이,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원론적인 내용이나 실무적인 내용, 또는 다른 나라 사회나 미래사회를 그린 책들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갖고 있는 성향의 일면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에 대한 각 목록의 기여도를 보면, 출판광고와 언론 서평, 그리고 베스트셀러 목록이 전체 목록 중에서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부 추천도서와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은 10%를 겨우 넘기고 있다. 따라서 출판광고나 베스트셀러 목록이 갖고 있는 성향이 그대로 공공도서관 장서의 성향으로 전이되어, 그것이 공공도서관 장서의 내용적 '주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부 추천도서와 청소년 권장도서가 '대항개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목록은 현실 세계의 본질을 비껴간 채 가치의 중립을 강조하고 교양적 측면에 치우침으로써 '대항개념'이라기보다는 '중간개념'의 수준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주류개념' 속에 묻혀버렸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대항개념'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그것은 '주류개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본질과 실질에 충실한' 글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항개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책들은 상당수가 금서의 논란 속에 휘말려 들어, 1980년대 한때 대학생들의 현실에의 눈뜸을 매개하는 '의식화의 통과제의'로서 반짝거렸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개념을 내포한 책들이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유입될 수 있는 공적인 매개물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때로는 적극적으로 배제되면서 단편적인 편입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V. 결론 - 기본이념의 정착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근대라는 역사의 산물이며, 그 전제는 특권층의 전유물이던 도서관의 문호를 일반 민중에게 개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그 존재론적 근거를 유지하고 부여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통해 대중들이 자기 세계에 작용하고 자기세계를 변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재론적 사명(the man's ontological vocation)'³³⁾에 눈뜨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독서라는 것이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하는 누구나의 제한 없는 자기 창조의 노력'이기 때문이다.³⁴⁾

33) 이 말은 프레이리의 다음 말에서 빌려온 것이다.

"인간의 존재론적 사명(the man's ontological vocation)이란 자기세계에 작용하고 자기세계를 변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 인간이 관계하고 있는 이 세계는 결코 고립되거나 폐쇄된 질서이거나 인간이 받아들여 작용해야 하는 '주어진 현실(given reality)'이 아니고,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이용하는 재료이며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비인간화하는 일을 극복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냄으로써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숙제인 것이다."(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성찬성 옮김) 광주, 1986, 13쪽).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주류 성향'들에 나타나는 것은 '교양인'과 '상식인'을 강조하고 '말 잘 듣는 사람'과 '복종'을 미덕으로 칭송하기도 하며, 모든 사회조건을 무시한 채 마음먹기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는 식의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성향의 책들은 생활적인 것과 사회과학적인 것을 배제시키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 개혁에 무력해지게 만들거나 부당한 모순에 대한 위안만을 안겨다 줌으로써 오히려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성향의 장서들 속에서 '반역사성', '반사회성', '비사회과학적', '유심론적', '반공·보수·우익', '심미', '사대'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은 수많은 독서운동가들의 단골 메뉴 속에 주된 양념으로 녹아들어 있으며,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대중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의 공통된 이념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도서관이 매달려온 개념들도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개념들은 공공도서관의 역사적 존립근거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본질을 '인간의 존재론적 사명'과 관련시켜 놓고 볼 때 지금까지의 공공도서관이 매달려 온 것이 '허위적 주변(peripheral) 이념'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허위적 주변이념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식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동시에 대중들을 '비판적인 각성과 반응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함몰'시킴으로써, 현재를 길들이려고 시도하고 또한 길들여진 현재가 끊임없이 재생되도록 획책³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허위적 주변이념이 한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되어 그 사회 전반의 지식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프레이리가 말하는 문맹의 세 가지 유형³⁶⁾과 관련시켜 설

34) 이 말은 리영희의 다음 말에서 따왔다.

"독서는 …… 한마디로 '自由人'을 목표로 하는 모두의 노력이다.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하는 누구나의 제한 없는 자기 창조적 노력이다. ……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자기에게 필요한 상황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두레, 1994, 353쪽).

35) 파울로 프레이리, 앞의 책, 22~23쪽.

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맹의 첫 번째 유형은 '문자적 문맹'으로서 별다른 부연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유형은 '의식의 문맹'으로서 문자적 문맹에서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의식은 아직도 침묵의 문화에 절여진 비역사적 의식, 주술적 의식, 대중적 의식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언론매체의 상업성에 심리적 주눅이 들거나 정치적 조작에 함몰되게 되는 의식수준이 포함된다.

셋째 유형은 '정치적 문맹(political illiteracy)'으로서, 이것은 이론과 실천의 분리, 역사·사회적 조건을 배제한 지식의 보편성, 세계를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겠다는 식의 세계관, 지식은 추상적이어야 하며, 그런 지식을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행위 모두가 정치적 문맹에 속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 문맹자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회현실에 대해 나약한 인본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현실을 거부하는 방식의 하나로 추상적 세계관에 몰두하면서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회피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현실의 비합리성과 사회변화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오도한 주관주의 속으로 피신하는 속성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보여주는 수준은 '의식의 문맹'과 '정치적 문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이 독립적인 개인이 되도록 추구하는 자아실현 욕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억압적 요소마저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 시민사회의 요구로 탄생한 공공도서관이 오히려 시민들이 근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부정적 역할에 가담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 근대 경험의 특수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것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초현실적인 어떤 것에 돌려버릴 경우에도 패배주의를 불러일으키지만,

36) 파울로 프레이리, 『교육과 정치의식 - 문화, 권력 그리고 해방』 (한준상 옮김), 학민사, 1987, 12~14쪽.

이런 상황을 문화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 한다거나 공공도서관 내부의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돌려버릴 경우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적인 인식에 바탕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식민지 경험과 이에 대한 철저한 청산의 실패, 민족분단과 장기간의 군사독재, 물질적 근대화への 치중 등이 우리 사회 전반을 규정해 왔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장서가 갖고 있는 성향의 현 단계 역시 한국 근·현대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속에서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이런 식의 주변이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틀고 있어야 할 '기본(basic) 이념'의 윤곽이 주변이념에 내포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주적 인간'과 '주체적 시민'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프레이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세계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갖추어지고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본이념과 주변이념의 관계는 비판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쪽과 위안을 주는 쪽, 현실에 대해 경고하고 교정하려는 쪽과 비뚤어진 현실을 유지하고 조장하려는 쪽 등과 같은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장서의 형태로 넘어가면 대중의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 주는 글과 현실세계의 본질과 실질에 충실한 글, 또는 대중들에게 심리적 면죄부를 주는 글과 대중의 양심을 자극하면서 가치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글이 있으며,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글쓰는 사람의 세속적 처세술의 도구로 이용되는 글과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구도에서 글쓰는 사람의 영혼이 통째로 실린 글이라는 상호 대비된 유형³⁷⁾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의 대립은 우리의 문학·예술계에 지속되어 온 해묵은 과제의 하나인 순수와 참여 논쟁과도 그 맥이 닿아있다. 예술작품은 줄곧 생활과 모든 작품외적 현실에서 단절된 하나의 존재라는 관점과, 생활과 사회의 실체에 의해서 제약된 하나의 기능이라는 관점사이를 왕래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을

37) 강준만, 「『거품문화』에 도전하는 김정란 시인」, 《(월간) 인물과 사상》(인물과사상사) 제1권 제4호(1998. 8), 61-62쪽.

위한 예술'은 기성의 질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지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순전히 정관적(靜觀的)인 태도의 우월성을 인정받아³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이 매달려온 주변개념과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해버린 순수문학은 그 성향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기본이 되고 어느 쪽이 주변이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처해 있는 편향성은 최소한의 균형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는 공공도서관 장서에 대한 적극적 관리개념의 도입이 요청된다. 이 개념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의 규모에 맞게 적절히 장서를 채워 넣는 식의 교과서적인 장서관리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출판광고나 베스트셀러, 그리고 외부의 추천도서 목록 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현장 수서 위주의 장서 선택의 개념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그것은 공공도서관 장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현단계 분석을 토대로 그 과소(過少)와 기울기를 확인한 다음, 왜곡과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균형이 맞추어질 때까지 분야에 따라서 적극적 구입과 적극적 배제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도서관 장서에 대한 적극적 관리라는 이 개념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구축해 놓은 튼튼한 장서를 통해 한국사회 전반의 지식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이념적 지향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사회의 전범이 될만한 가치체계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엄선되어 구축된 기본 이념 중심의 실물 장서를 전제로 하여, 특정 담론이 흘러 넘친다면 이에 대항하는 담론의 장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널리 이용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식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작업에도 '주류 개념'이나 '대항 개념' 또는 '기본 이념'이나 '주변 이념' 등의 용어를 보완하

38) A. 하우스,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 現代篇』(백낙청·임무웅 공역) 창비, 1974, 20~21쪽.

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이용자 요구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단순히 이용자가 많이 찾았기 때문에 이들의 기호에 들어맞는 책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무겁고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책을 외면해 버리는 식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렇게 하여 축적된 장서가 도서대여점의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³⁹⁾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를 베스트셀러 위주로 파악할 경우 오히려 장서구성에 드는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한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베스트셀러의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은 반면,⁴⁰⁾ 이용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신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저럭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장서구성으로는 한시적이고도 단순한 읽을거리 제공의 수준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 천착하여 그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도서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편이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 제공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들의 드러난 요구에 맞춘 장서정책을 지양하면서 '대중의 시야를 될 수 있는 한 넓히는 방향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비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우리의 과제는 다수대중의 현재 시야에 맞게 예술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시야를 될 수 있는 한 넓히는 일이다. 참된 예술 이해의 길은 교육을 통한 길이다. 소수에 의한 항구적 예술독점을 방지하는 방법은 폭력적인 예술의 단순화가 아니라 예술적 판단능력을 기르고 훈련하는데 있다. 문화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듯이 예술의 세계에서, 발전을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의 회피가 되고 만다는 데에 가장 큰 난점이 있다. 즉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

39) 도서대여점의 책은 돈을 내고 보아야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책은 무료로 빌려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런 식의 항변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공공도서관의 형편이다.

40) 전명숙의 연구에 의하면 베스트셀러의 수명은 대부분 5년 이하로 조사되었다.(전명숙, 「대학도서관의 베스트셀러에 관한 연구」, 『창사이준회교수 정년기념논총』, 논총간행위원회, 1993, 160쪽).

태를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결책을 발견하는 일을 연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는 것이다. 오늘날 원시적이면서 동시에 가치 있는 예술을 만들어내는 길은 없다.
오늘날 참되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예술은 복잡한 예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예술을 누구나 똑같은 정도로 즐기고 이해하는 도리는 없지만 넓은 대중의 참여가
확대되고 심화될 수는 있다. 문화적 독점을 해소하는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경제
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창조를 위해 싸우는 수밖에
없다.⁴¹⁾

셋째로는 우리 역사와 사회에 책임있는 지식 유통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이 문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이 여
태껏 그래온 것처럼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출판환경과 유통구조에도 심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좋은 책을 넣고 싶어도 출판사 측에서 '장사'가 되지 않을 만한
책은 출판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도서관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는 식의 패배주의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양서에 대한 일차적인 소비자가 되어 그 기본적인 수요를 창
출해 줌으로써, 출판사가 용기를 갖고 양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출판하도록
장려하는 일도 공공도서관이 떠맡아야 할 사회적 책임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받
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책의 일차적 소비자가 개개인의 국민이 아
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공적 기관이 되는 것이 책의 유통에 있어서는 정상적⁴²⁾이
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식과 정보만을 중심으로 이를 적절히 수집·축적·조직하
여 제공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유통 부
분은 물론 생산의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현대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요
청된다. 책은 본질적으로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도서관

41) A. 하우저, 앞의 책, 260~261쪽.

42) 이종한, 「베스트셀러란 무엇인가 - 베스트셀러의 세계적 양상과 기준」, 《서평문화》(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집(1991), 12쪽.

은 모든 사회적 경험을 축적하여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의 의식에 전달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⁴³⁾ 도서관 현상을 사회과학의 반석 위에서 조망한 이 말은 인류의 사회적 경험을 담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생산·유통·축적 과정에서 편향된 선택이나 변환, 또는 왜곡이나 치우침이 없이 균등하게 축적되어 전달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식은 '끊임없는 경제적·정치적 선동'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거대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기구(대학, 군대, 문서, 전파매체 등)의 지배적인 통제를 받고 생산되며 전파된다. 이에 대해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해 온 푸코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차라리 하나의 선언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다.

권력의 모든 관계가 차단되어 있는 곳에서만 지식이 존재한다거나, 지식이 권력의 명령이나 요구, 권력의 이익에 초연하여서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전통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인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권력과 절연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인정해야 할 것은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단순히 권력이 지식에 봉사하기 때문에 지식을 도와 준다거나 지식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이며, 권력과 지식은 자기의 영역 속에 상대방을 서로 직접 끌어들이고 있으며, 지식의 영역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고 또한 권력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그 관계를 만들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⁴⁴⁾

43) Pierce Butler with an introduction by Lester E. Asheim,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p.xi. 의미의 보다 명확한 전달을 위해 그 원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The library has been created by actual necessities in modern civilization. It is now a necessary unit in the social fabric. Culture must transcend the individual for it is essentially a social cumulation of experience whereby the men of each generation possess potentially at least, all that their predecessors have ever learned. Books are one social mechanism for preserving the radical memory and the library one social apparatus for transferring this to the consciousness of living individuals. Any understanding of society must include an explanation of this social element and of its function in communal life. Thus librarianship takes its place among the phenomena to be discussed in any system of social science."

44)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Gallimard, 1975, p.32; 오성근, 「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 『미셸 푸코론 - 인간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한울, 1990), 54-55쪽

어떠한 지식의 형태도 그 자체가 권력의 형태이며, 동시에 그 존재와 기능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권력과 연결된 의사소통, 기록, 집적, 대체의 체계가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역으로 어떤 권력도 지식의 권유, 분배, 보존, 발체가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 이러한 수준에서는 한편으로는 지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나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식 - 권력'의 근본적인 형태만이 있을 뿐이다.⁴⁵⁾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든가 가치 있는 모든 지식이 책으로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부정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지식 - 권력'의 근본적인 형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의 권유·분배·보존·발체'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권력'의 핵심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도달해 있다. 다만 도서관과 관련한 '지식 - 권력'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의 도서관이 권력에 충분히 동화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그 권력의 발현 형태가 물리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방식으로 은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인류의 사회적 기억을 축적하여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의 의식에 전달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 이 사회가 현실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⁴⁶⁾에 대해 항상 눈에 있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앞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도서관 내부는 물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의 안팎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서 재인용.

- 45) Michel Foucault, 「Theorie et institution Pénales」, 《L'Arc》 n°F70(1970), pp.25~26; 김부용, 「미셸 푸코에 있어서 지식과 권력」, 『미셸 푸코론 - 인간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한울, 1990), 99쪽에서 재인용.
- 46) 푸코에 따르면 이 작업은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 현실의 어느 제한된 특징을 선택해서 말을 퍼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특정한 방법으로만 세상을 이해해서 떠들며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어느 특정한 그룹의 이익만을 위해 특정 의미를 통용시키는 것이다.(조츨, 「힘, 몸, 그리고 성 - 미셸 푸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물과 사상 4』 (개마고원, 1997), 326쪽.

참 고 문 헌

- 강준단. 『인물과 사상 1~8』. 개마고원, 1997. 1~1998. 10.
- 김명숙. 「범람하는 文學賞, 권위가 없다」, 《新東亞》(1989. 2). 480~489쪽.
- 한상진 등. 「미셸 푸코론 - 인간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한울, 1990.
- 김인호.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 - 우리시대의 출판운동에 대한 한 출판인의 현장보고』. 한길사, 1987.
-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두레, 1994.
- 시대평론 편집부 편. 『베스트셀러』. 시대평론, 1990.
- 이상수. 「또 부끄러운 문화부 추천도서」, 《한겨레》. 1998. 11. 21.
-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 최강문. 「상업주의 출판의 종착역, 베스트셀러 조작」, 《(월간) 말》. 제139호 (1998. 1), 98~101쪽.
- 플레이리, 파올로. 『교육과 정치의식 - 문화, 권력 그리고 해방』(한준상 옮김). 학민사, 1987.
- 플레이리, 파올로. 『페다고지』(성찬성 옮김). 광주, 1986.
- 하우저, A.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 現代篇』(백낙청·염무웅 공역). 창비, 1974.
- K 관장과의 인터뷰. 1997. 11. 5. 11:00~13:30, Y 도서관 관장실.
- Butler, Pierce(with an introduction by Lester E. Asheim).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 《서평문화》(한국간행물위원회 서평위원회). 제1집(1991. 4)~제28집(1997. 12).
- 《조선일보》 광고란. 1960. 10~1995. 10.
- 《조선일보》 서평란. 1960. 10~1995. 10.

A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Public Library Collection

Young-Ki Kim *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character of the public library collection. It was done by indirectly analyzing the character of the five hideouts which are most favorably chosen by the public library collection. Among those five hideouts, book advertisements, book review in newspaper and bestseller are similar in commerciality, because they are only treated as a product for profit which were being adopted to the readers' taste. And the two recommendation lists pursue public interests and go through intellectual filtering, be it only partial, forming a separate category.

As a result, the public library collection could not act as the carrier in the knowledge flow and ignored by the public, only maintaining the level of providing the time-killing reading material. Rather, it may even have carried out the dysfunction of distorting the flow of knowledge. Although external forces such as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or publishing- environmental factors came into play, the critical point would be the continuing effort by the public library to secure the autonomy in order to maintain the reason for coming into being endowed by the public.

* Lecturer, Dep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